

순례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오늘은 장애인주일

- 찬양예배 시 사랑부 특별찬양 -

오늘은 장애인주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장애를 집안의 수치라는 생각 등으로 장애인을 격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장애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서울교회도 교회 설립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랑부'를 1992년 1월 첫 주 3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연 기도회가 장애인 부서의 시초로 7명의 학생과 43명의 등록 예정자들로 개교하였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주일을 맞아 사랑부(부장:장창수 안수집사)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4월 정기당회 열려

- 5월 7일(주일) 제16대 장로선거를 위한 제직회 -

당회는 손달익 위임목사의 인도로 지난 4월 12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월 정기당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당회에서는 제16대 장로 선출을 위한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의회는 2023년 5월 21(주일) 찬양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4월 30일(주

일), 후보명단을 순례자에 공고하고 5월 7일(주일) 찬양예배 후 특별제직회 시 후보 10명 선출, 5월 14일(주일), 제16대 장로후보 10명을 순례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6대 장로선거는 5명을 선출할 예정이며 1차 투표 시 5명 미만이면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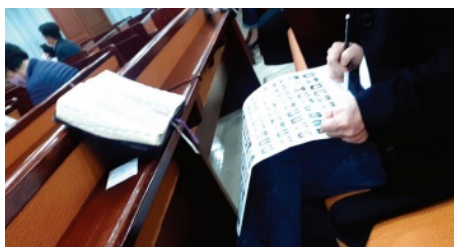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용 이강현
-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장애인과 비장애인 벽을 허무신 예수님



손달익 위임목사

장애인주일은 1991년 76회 총회에서 장애로 인해 소외된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사회에 있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는 장애인 선수를 묘사할 때 The Handicapped, Disabled라는 표현 대신에 Impairment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패럴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무엇을 할 수 없고[Disabled] 어떤 한계[Handicapped]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Impairment] 속에서 선수들이 이룬 성취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변화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전에는 그들의 한계와 능력을 바라보며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어 벽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한 사회와 한 국가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역 대부분을 장애인을 만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할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었던 벽을 허무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부 학생들도 우리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위치에 있는 우리 서울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약 263만 명의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팎에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격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환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교육, 선교 사역하는 일에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장창수 안수집사
(사랑부 부장)

장애인에 대해 남달리 관심이 많으셨던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서울교회 설립 이듬해 교회가 아직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은 때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를 세우셨습니다. 지금의 사랑부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가 없지만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주로 재활원에서 오는 친구들이어서 장애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식사도 읊은 물론 교회에 있는 동안 대소변까지 해결해 주어야 했기에 그들을 보살피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그동안 사랑부에는 참으로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고 또 많은 교사들이 그들을 가르쳤는데 교사

들 가운데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하며 근속하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모두 밑으로 빠지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콩나물은 자라납니다. 장애인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며 그들이 알아들을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마침내 그들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부 교사들은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장애인주일을 맞아 오늘 찬양예배

시 사랑부 친구들이 작은 공연을 합니다. 참 많이 서툰 모습이지만 부디 성도님들께서 큰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부 친구들이 세상의 편견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장애인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하듯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러시아 선교편지

팬데믹 상황 이후 차츰 회복 되는 러시아 사역



설날 행사 중 한복 체험 중인 러시아교회

할렐루야!

존경하는 손달의 목사님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하여 십자가 수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건강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월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소천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슬프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손달의 위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 다시 부흥하는 우리 서울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위로와 함께 이종윤 원로목사님도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곳을 방문

하셔서 첫 세례식과 장립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공항에서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 저에게 입혀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눈물이 절로 나는군요.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다짐해 봅니다.

만 1년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인한 물가 폭등과 함께 서방 측의 각종 제재는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 러시아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선교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1. 교회 사역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정상화로 예배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던 성도들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으며, 중단되었던 사역들도 하나씩 하나씩 재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못하고 있다가 협력 교회인 뿌리미레니예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글학교 사역

2022-2023학기 중 1월부터 2학기를 시작했으며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 선교센터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성인까지 합쳐 매년 20명-25명 정도 되고, 시립도서관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매년 20명-25명 정도 되어 합치면 매년 40명-50명 정도가 배우고 있습니다.

다.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복음도 받아들이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설날 행사

한국의 설날에 맞추어 매년하는 한국문화 행사 겸 전도축제를 올해도 하였습니다. 한글학교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한복 접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한국문화도 알렸습니다. 또한 방문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선교센터를 방문하도록 전도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도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새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글학교에 나오는 학생도 있고, 교회에 다시 나오는 성도도 있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였습니다.

기도 제목

1.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2.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교회가 회복되어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3. 예배와 말씀 공부를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으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4. 성경읽기 모임, 일대일 제자훈련, 켈리그라피 성경쓰기 모임, 마더와이즈 모임 등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5. 교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로 자라도록
6.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복음도 받아들이도록
7. 김영호·서향정 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

러시아에서

김영호·서향정 선교사 드림



주일예배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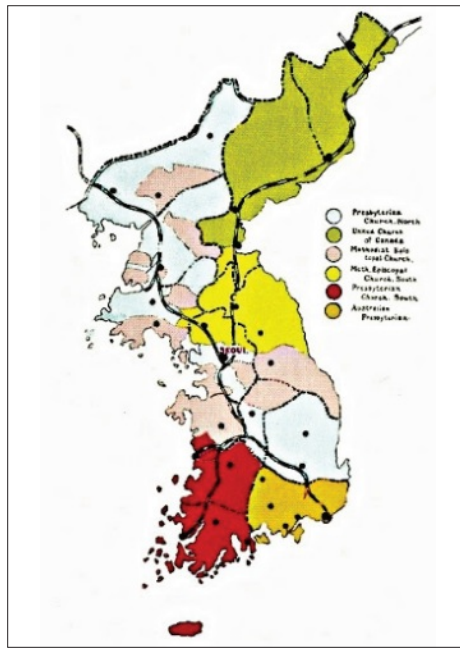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11)

무산된 하나의 교회와 선교지 분할 협정

한국교회는 지역에 따라 교파의 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경상도와 전라도는 장로회가 압도적으로 많고, 강원도나 충청도에는 감리회가 많다. 인천과 강화도는 성공회 교회가 밀집해 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도 강원도에서 장로회가 이단 취급을, 경상도에서 감리회가 이단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파별 지역 분포가 이리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것일까. 이는 선교 초기부터 시도되었던 교계예양, 다른 말로 선교지 분할 협정 때문이었다.

1885년 미국 북장로회와 북감리회의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이래 더 많은 교파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아왔다. 1889년 성공회와 호주장로회, 1892년 미국 남장로회, 1895년 미국 남감리회와 엘라딩선교회(침례회), 1896년 플리머스 형제단, 1898년 캐나다 장로회, 1904년 안식교, 1907년 동양선교회(성결교회), 1908년 구세군 등 다양한 교파가 한국선교에 참여했다. 선교사들은 좁은 한반도에 여러 교파가 경쟁적으로 선교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길 갈등과 중복 투자 등을 우려했고 이를 교파별로 선교지역을 나누어 맡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 선교지 분할 협정은 1892년 미북장로회와 미북감리회 사이에 처음 논의된 이래 새로운 교파들이 속속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 하지만 실용적 태도가 배어 있는 선교사들에게 인구가 많고 선교가 용이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았다. 당연히 공식적인 교회연합기구가 이 문제를 조정해야 했다. 장로회와 감리회가 중심이 되어 1905년 설립한 '재한개신교선교부공의회'(General Council of



선교지 분할협정에 따른 지역과 교파들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이 일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선교지 분할 협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는 것은 1909년이다. 물론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추가 협의가 있었지만 큰 틀은 일제강점기 내내 유지되었다. 1910년을 기준으로 장로회와 감리회 선교지역의 대강을 보면 미국 북장로회가 경기도·평안도의 일부 지역과 경상북도, 미국 남장로회가 전라도와 제주도, 호주 장로회가 경상남도, 캐나다 장로회가 함경도, 미국 북감리회가 경기도·평안도의 일부 지역과 충청도, 미국 남감리회가 강원도를 맡았다. 그리고 서울이나 평양과 같이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공동 선교지역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이 선교지 분할을 임시적인 조치로 생각했다. 협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던 선교부공의회는 원래 한국에 교파 구별이 없는 단일한 토착교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된 기구였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서양의 각 교파를 따르는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일치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05년 공의회를 조직하기 위해 모인 150여 명의 내한선교사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하면서 이 교회의 이름을 "대한예수교회"로 정했다. 선교 현장의 입장은 그만큼 확고했다.

그러나 본국의 입장은 달랐다. 본국의 해외선교부들은 세계 각지의 선교활동과 결과를 두루 지켜보며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 본국은 한국보다 앞서 토착교회 설립을 시도했던 일본, 중국, 인도 등의 나라에서 교회의 기독교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음을 알고 있었고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결국 한국에 하나의 토착교회를 만들겠다는 선교사들의 꿈을 본국의 반대로 점차 사그라들어 1910년에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 결과 임시적인 조치여야 했을 선교지 분할이 고착되었다. 원래라면 하나의 교회로 합쳐지면서 없어져야 할 교파들이 계속 활동하게 된 것이다. 각 지역에서 지방색과 교파색이 복합적으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30년 넘게 지속되었고 이는 지역별로 교회의 특성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원도에서 장로회가 이단 취급을, 경상도에서 감리회가 이단 취급을 받았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생긴 이유이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10:11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예배 후 전도위원회(위원장:차영도 장로)와 권사회(회장:장호림 권사)가 준비한 달걀을 받아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찬양대(대장:이민호 장로)의 부활절 절기찬양이 있었습니다. 지휘 유태왕 안수집사, 피아노 이주희 선생, 솔리스트 소프라노 서주희 선생, 장하영 선생, 테너 오세원 선생, 베이스 정주원 선생이 수고했으며 이번 특별찬양은 우리나라 작곡가 이근호의 부활절 칸타타 '사랑이 없으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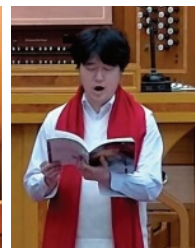


사진: 정승균 안수집사 · 유은경 집사(편집부)

마스크 착용 자율적으로

교회는 오늘, 4월 16일(주)부터 교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단, 찬양대는 찬양할 때에는 전체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며 찬양 후 착용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오랜 방역 기간 동안 교회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스데반회 지하주차장 물청소

서울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회장:홍창훈 안수집사)에서 4월 29일(토) 오전 10시 교회,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겨우내 쌓인 먼지와 염화칼슘을 물청소하며 닦아낼 예정입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4월 29일(토)까지 이동하여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봄학기 모집

교육위원회(위원장:김혜연 장로)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찬양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고자 열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수강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3년도 봄학기 : 4. 15(토)-6. 18(주일), 10주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45,000)
- 문의 및 신청 : 낚재은 집사(010-9189-8019)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 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호	장윤식 안수집사
통기타	주일	13:50	10주	505호	박민서 안수집사
	토요일	10:00	10주	505호	김상운 선생
베이스 기타	토요일	11:30	10주	505호	
드럼	토요일	13:00	10주	101호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요일	14:00	10주	505호	최명아 선생
기초연기	토요일	협의 후 결정	10주	701호	박재현 배우

식사
- 교회제공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17일	월	왕상 3-4		전 1-12	
4월18일	화	왕상 5-7		아 1-8	
4월19일	수	왕상 8-9		사 1-7	
4월20일	목	왕상 10-11		사 8-16	
4월21일	금	왕상 12-13		사 17-28	
4월22일	토	왕상 14-16		사 29-36	
4월23일	주일	왕상 17-18		사 37-4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부활신앙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나누며 십자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 하소서.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서울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선교지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 내려 주소서.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 국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평가가 세계 모든 곳에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